이승우의 「999」에 나타난 신을 향한 인간의 갈망

문용식(총신대학교 국어국문학 교수)

1. 머리말

인간은 어떤 장소나 사람, 우주의 본질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느낀다. 강렬한 갈망이 불쑥불쑥 솟아오를 때마다 도대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 실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인간이다. 갈망이 소설의 중심 이야기가 될 때, 그 갈망은 영적인 순례를 떠나 다양한 만남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된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처럼 눈에 보이는 만남도 있을 수 있고, 인간과 신의 만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만남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동경에 찬 순례의 길이란 그 속에서 자신의 갈망의 표지판을 발견하는 것이다.

본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본 작품은 인간이 지닌 갈망에 대한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작품을 분석한 결과 이승우의「999」는 바로 상징적인 소재를 통하여 신을 향한 갈망과 구원의 문제를 다룬 수작임을 알 수 있었다. M이라는 한 인간의 순례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갈망과 구원이란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서에서 M이 겪는 신의 섭리와 다양한 경험, 그리고 신과 소통하고자 하는 갈망을 통해 “옛 학자들이 천상 -영광을 선포하는 천상-”[1]을 만난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2. 갈망의 전도(傳道)

우리는 살아가면서 갈망을 경험한다. 그 갈망이란 우리의 잠재의식보다 더 깊은 어떤 곳을 말한다. 이 깊은 심연의 장소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제공받을 수 없지만, 그 선율의 메아리와 유사한 것을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거나 감지하게 될 때 천국의 본질에 대한 희미한 빛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작품에 이러한 갈망의 문제가 중심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인물들 관계 속에서 나타난 갈망에 대한 ‘전도’(傳道)라고 할 수 있다. 떠돌이 악사와 M, 그리고 M과 신전을 지키는 노인으로 이어지는 갈망에 대한 전도의 과정은 신과의 소통을 이루어 가기 위한 인간들의 갈망의 퍼트림이다.

M의 순례를 중심으로 한 갈망에 대한 전도의 과정은 떠돌이 악사의 출현으로 시작된다. 작가는 떠돌이 악사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M에게 전해 줌으로써 인간과 신의 소통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열어 놓는다. 그 가능성은 사력을 다해 마을 사람들에게 봄이라는 부활의 노래를 불러주고자 하는 열정에서 비롯된다. 떠돌이 악사는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가 발견한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떠돌이 악사의 음악은 영적 여정의 종착점인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게 갈망에 대해 새롭게 눈뜨게 하는 동인이 된다. 떠돌이 악사는 그가 발견한 영원하고 변함없는 기쁨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준다.

> M에게 알렙에 대해 최초로 이야기해 준 사람은 떠돌이 악사였다. (중략) 마을에 나타날 때부터 병이 깊었던 떠돌이는 음악을 듣기 위해 몰려든 마을 사람들에게「봄을 부르는 노래」

1) C. S. 루이스, 공경희 역, 『침묵의 행성 밖에서』, 홍성사, 2009, p. 46.

를 한곡 힘들게 연주하고는 주저앉아 버렸다. (p. 246)

인용문에서 우리는 알렙과「봄을 부르는 노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렙은 신전이다. '알렙에 대해 최초로 이야기해 준 사람은 떠돌이 악사였다'라고 진술하는 서술자의 태도는 자신이 깨달았던 영적 세계관을 계속 말하고 다녔다는 분명한 상징적 언술로 읽히는 것이다. 즉 떠돌이 악사는 자기 행동에 대해 소극적이고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일관되게 '봄을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서 영적 세계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녔다. 아니 병이 깊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서 갈망을 일깨우기 위해 힘들게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떠돌이 악사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면서도 백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했던 예수의 모습과 겹쳐진다. 떠돌이 악사는 병이 들어 육체적으로 나약한 가운데서도 희망의 봄노래를 들려주면서 삶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꽃피어 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온 힘을 다해 부른 봄을 부르는 노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분기점이 될 수 있으며 희망의 재출발이 될 수도 있다. 갈망의 끝이 주는 아름다움, 육체가 시들어가는 추운 겨울을 넘어 부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모습에서, 누군가 갈망의 끝이 주는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될지도 모른다.

작가는 떠돌이 악사의 갈망을 부활시킨다. 갈망이 떠돌이 악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을 지켜보던 M을 통하여 갈망이 다시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 문틈으로 비쳐든 달빛이 악사의 얼굴 위에 아른거리는데, 어디선가 아련하게 피리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자니 문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떠돌이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새어나오며 음악소리를 내는 게 느껴졌다. 그 음악소리 역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만큼 은밀했지만, 은밀한 만큼 간절하기도 했다. M은 음악소리가 귓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숨구멍을 타고 들어온다고 느꼈다. (p. 247)

떠돌이 악사의 피리 소리는, 마치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신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 같은 감동을 느끼는 것과 같이, M에게 신성함 영감을 불러 일으켜 준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거나 들을 때 거기서 얻는 감동은 부활절 새벽에 무덤가로 찾아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의 감동과 같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이 가능하다면 떠돌이 악사를 지켜보던 M이 서서히 음악 소리를 듣다가 그 음악에 압도당하는 장면을 '귓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숨구멍을 타고 들어온다'라고 묘사하는 서술자의 태도가 이를 입증한다. M이 들은 음악은 인공의 소리가 아니라 천상의 소리인 것이다. M의 느끼고 있는 음악소리를 '천상의 소리'라고 할 때, 우리는 M도 떠돌이 악사의 영적 상태를 전수받았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우리가 파악하는 작가의 의도는 '우리에게 떠돌이 악사가 단순히 병들어 죽어가는 맥빠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피리 소리에 대해 새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리 소리는 M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떠돌이 악사로부터 전수받은 M의 영적갈망은 신전에 있는 노인을 만나면서 더욱 확고해진다. M은 알렙 신전에 도착했을 때 노인의 분위기에 압도당한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 노인의 지팡이 소리였다. M은 신전에 들어가려 할 때 노인의 제지를 받

는다. 노인은 그에게 신전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M은 신과의 소통을 위해 떠돌아다니는 순례자였기에 돈이 없었다. 그래서 M은 그가 가지고 있는 피리를 들려주고 신전에 들어가려고 한다. M은 피리를 분다.

> 신전 입구에서 M은 몸을 통째로 집어 넣을 수 있는 자루처럼 생긴 회색의 수도사복 차림을 한 노인에게 제지당했다. (중략) 노인의 권위가 노인이 속해 있는 신전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한 다음이었던 것이다. (p. 254)

> 표정에 어린 침묵과 고요가 너무 완강해서 새삼 그 노인이 신전의 일부와 같다는 생각을 저작하다 말고 그는 돌연 노인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중략) 그 감각에 의하면, 노인은 그의 피리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듣지 않고 있었다. (p. 255)

피리소리는 갈망을 담은 소리이다. M은 갈망을 담은 소리로 신전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런데 노인은 소리에는 관심이 없다. 노인은 오로지 신전을 지키는 임무를 완수해야 하며 신전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를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존재한다. 지팡이는 인간과 신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이다. M이 신전에 들어가 헤매고 있을 때 노인은 지팡이를 통해 성자내지 순교자들의 죽음에 대해 예를 표하라고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작가는 노인을 인간과 신을 연결시켜주는 전도자로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노인은 M보다 더 가까이에서 신과 소통하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 경배할 것을 요구하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위협감과 함께 왔고, 그러자 그런 요구가 당연하다는 생각이 이어졌고, 그래서 그는 그 네모반듯한 돌판 위에 무릎을 꿇었다. 조금 전에 자신이 실수한 게 아니란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노인이 지팡이로 그의 목덜미를 내리쳤다. (중략) 노인도 더 이상 인내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는지, 혹은 이 한심한 외부인의 눈치없음에 질렸는지, 자루 같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짧고 둥근 막대같은 것을 꺼냈다. 노인이 막대의 끝부분을 살짝 돌리자 거기서 환환 빛이 새어나왔다. 노인이 글자판에 빛을 쏘았다. (중략) '성 조슈아, 여기 잠들다'라는 글자와 아마도 성 조슈아의 생몰연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숫자를 읽을 수 있었다. (p. 258)

노인은 M에게 신전이 무덤의 공간임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들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한다. 신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다 죽은 성자들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것이다. 바로 이곳 순례자내지 성자들의 무덤에서 M은 신과의 의사소통을 이루기 전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는다. 바로 '죽은 자는 단속할 수 없다'라는 죽음 의식을 통해서이다. 그 의식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숭고함을 지닌다.

> 무엇 때문인지 더 이상 노인이 그를 방해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는데, 그것은 자기를 죽은 자로 인식하는 심리상태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다. 죽은 자는 단속할 수 없으니까, 하고 중얼거리고는 누가 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멋쩍게 웃었다. (p. 262)

인용문에서 보듯이, M은 타인이 죽은 자로 인식하는 그것을 생각한다. M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나서 떠돌이 악사가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사실을 생각해 낸다. 그리고 하

늘을 보기 위해 신전의 지붕에 있는 모래를 치워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는 떠돌이 악사가 죽던 날을 기억해 본다. 이와 같이 M이 자신을 죽은 자로 인식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떠돌이 악사가 죽던 날의 음악을 되돌아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난당하시기 직전에 고통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정 정도 상통한다.

> 그리고 그는 떠돌이 악사가 죽던 날 들었던, 천둥처럼 장엄하게 울려 퍼지며 방안을 가득 채우던 그 음악소리를 들었다. 거부할 수없는 힘이 그의 몸을 일으켰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명감이 그의 정신을 사로잡았고,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성자들에게 기도했고, 그러나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잔이라는 걸 곧 깨달았다. (p. 263)

M은 죽음 의식 후 자기를 성찰한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신과의 소통을 위한 열망적 단계의 극점을 만난 것이다. 지금까지의 순례가 신과의 소통을 위한 열망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피할 수 없는 죽음 의식을 겪고 난 뒤에는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된다. 따라서 M의 죽음은 신과 소통을 하기 위한 숭고한 것이었다. 그것을 목격한 노인은 M의 죽음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신에 대한 최고의 갈망이었음을 인정한다. 결국 노인은 M의 피리를 들고 세상을 떠돈다. 그가 이제 천상으로 향하는 길을 다른 인간들에게 전하는 열망적 구도자가 된다.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신에 대한 갈망은 전자의 것은 후자의 예시가 되고, 후자의 것은 그 다음 후자에게 전도된다. 이와 같이 신에 대한 갈망을 전하는 일이 본 작품에서 자연스럽게 교직되어 있다. 이로 보건대 인류가 지속되는 한 또 다른 누군가가 신에 대한 열망의 전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 피리 소리의 상징성

이 작품에 나타난 몇 가지 상징성을 살펴보자. 그 상징성을 밝히는 것은 삶의 본질과 영적 세계에 대한 성찰을 인식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무엇보다도 피리 소리는 앞에서 언급한 갈망에 대한 전도의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소통의 소재임과 동시에 자연과 인간, 시간과 공간을 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신과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상징적인 소재이다. 또한 인간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 주는 영적인 갈망의 대상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기에 좋은 모티브이다. 피리 소리는 신비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 실재의 세계를 탄생시키고 있으며, 피리는 곧 인간이 추구하는 고유한 가치와 본질을 소리로써 풀어내는 언어인 것이다.

> 떠돌이 악사가 남긴 세 개의 크고 작은 피리는 M의 차지가 되었다. 악기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피리를 불었다. 그가 입을 가져다대면 피리가 소리를 냈다. (중략) 피리 안에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도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떠돌이 악사가 평생 동안 떠돌며 보고 듣고 노래한 세상이므로. (p. 248)

피리 안에 '상상할 수 없는 것들도 들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담화론적 의도는 부활에 대한 강한 암시로 읽혀진다. 부활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M이 피리를 불 때마다 떠돌이 악사가 갈망했던 언어가 소리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과 연결된다. 결국 언어와 소리는 같은 의미망에 속한다. 그렇다면 작가가 피리 소리를 부활과 관련시킨 주제론적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은 갈망의 일깨움이다. 작품에서 떠돌이 악사와 M은 죽었지만 피리소리를 통해 계속 우리의 마음에 다시 갈망을 일깨우며 실제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살아있다. 곧 이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뿐 이들의 갈망은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피리 속에 그들이 보고 들은 장면과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이 이를 확증한다. 이러한 설정은 작품을 통해 판단하건데, 소리가 땅의 세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비상한다는 영적 세계관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들이 죽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소리로 계속 부활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 둥글고 아득하고 먼 하늘은 그에게 형언할 수 없는 허기를 더했다. 허기는 그의 손에 피리를 쥐여 주었고, 피리소리는 그를 더 깊은 허기 속으로 빠뜨렸다. (p. 248)

M이 순례의 길을 나선 것은 단순히 떠돌이 악사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피리 소리에 담겨져 있는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부활을 위한 담금질의 한 과정이다. 그는 먼 하늘을 보면서 허기를, 피리 소리가 허기 속으로 그를 더욱 빠져들게 하였다고 느낀다. 이것은 영적인 갈망의 허기이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 피리를 불고, 더욱 허기 속으로 빠져든다. 이것은 더욱 빠져들내적 확산을 나타난 것으로 그가 가고 있는 순례의 길은 신, 혹은 우주이르고자을 찾기 위한 것이다. 늘을 보면 허기란 이 작품하였죤제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담화론적 의도와 관련된다. 따라서 피리 소리는 구원을 갈망하는 혹은 하였내적인 울림, 그것은 신들이 사는 천상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 들을 귀가 없는 노인에게는 피리가 하찮은 물건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떠돌이 악사인 그에게는 자신의 삶의 전부와도 같았다. 그렇지만 그는 하늘이 올려다 보이는, 그러나 아직 보이지는 않는 원형의 유리창이 있는 신전 바닥에 앉아서, 피리는 이곳으로 그를 안내했으며, 그러니까 그가 피리를 분 것은 이곳에 오기 위해서였으며, 그러니까 이제는 피리를 불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피리는 없어져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p. 261)

M이나 떠돌이 악사에게 피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피리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심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피리가 M이 추구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전제 조건임을 '그가 피리를 분 것은 이곳에 오기 위해서였다'는 말에서 알 수 있다. 때문에 M은 갈망하는 세계에 도달하게 되면서 이제 피리는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 피리는 삶의 전부임 -> 피리가 신전으로 그를 인도함 -> 이제는 피리를 불지 않아도 됨 -> 피리가 없어져도 됨

M의 삶은 피리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피리는 이 작품의 해석소로 자리잡고 있다. M이나 떠돌이 악사가 떠돌아다니면서 피리를 분 것은 갈망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다. 그런데 피리가 M으로 하여금 갈망의 대상인 신전으로, 즉 유비적으로 표현하면 천국을 볼 수 있게 만들었을 때, 이제 피리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떠돌이 악사는 이미 갈망하던 세계인 천국의 입구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피리는 M에게 신과 소통하기 위한 장소인 알렙 신전으로 인도한 것으로 소명을 다한다.

하지만 신은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다. 바로 신전에 올라왔을 때의 계단과 똑같은 계단을 M 앞에 다시 놓이게 함으로써 신과의 소통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늘의 입구에 도착한 M은 우주의 기원과 본질로 진입하기 위한 또 다른 의식과 마주친다. 그가 마주친 것은 999이다. '999'라는 숫자는 인간이 하늘(天, 1000)에 닿기 전에 도달해야 하는 지상의 마지막 문으로써 삶과 죽음, 천국과 지상의 경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갈망의 순간이 최고조에 다다르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영광과 신성한 아름다움과 영적인 빛에 대한 갈망의 종착점에 도달하기 위해 M은 마지막으로 수많은 계단을 올라야 한다. 그 계단을 올랐을 때, 우주의 기원에 대한 본질적인 사유와 맞닿게 되고, 그 때에야 깊은 심연의 장소로 인도된다.

> 그는 계단을 딛고 올라가면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성한 세계, 우주의 기원과 본질을 품고 있는 특별한 공간 속으로 들어간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p. 253)

> 숫자는 999에서 멈췄다. (중략) 실제로 그는 돌판 위에 마른 몸을 누이고 하늘을 향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선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 우주의 기원과 본질을 사유할 수 있는 이미지와 대면하고자 하는 욕망이 곧 그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 (pp. 253-254)

> 수분이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의 몸은 너무나 가벼워서 사다리에는 큰 부하가 걸리지 않았다. 신전에 올라오기 위해 그가 세어야 했던 돌계단의 숫자를 그는 사다리를 오르면서도 세어야 했다. 999. 하늘은 그 위에 있었다. (p. 264)

신과의 소통은 나를 버리고 영혼의 가벼움을 인식할 때 가능한 것이다. 우주의 기원과 본질을 알게 된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다. 그러기에 신의 섭리에 이르는 길은 죽음 후에 부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괴로움을 동반하는 즐거움이다. 신과의 소통에 대한 갈망은 그 괴로움을 넘어서 자기를 극복할 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999의 계단은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최고 한계치이다. 신과 소통하기 위한 최고의 몸짓을 작가는 999라는 숫자를 통하여 표현함으로써 그 길이 진심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승우는 무한한 기쁨이 손짓할 때조차도 루이스가『영광의 무게』에서 표현한 것처럼 "반쪽짜리 마음을 가진 피조물"로써 혼돈의 꿈을 꾸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준다.

> 밤새 사나운 꿈을 지나오긴 했다. 거미들과 쥐들이 우글거리는 동굴 속에 잠에 취해 누워 있는 자신을 꿈속에서 보았다. 거미들이 얼굴에 거미줄을 치고 쥐들이 살을 파먹는 것을 알면서도, 얼른 잠에서 깨어 일어나 거미줄을 걷어내고 쥐들을 쫓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꼼짝하지 못했다.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잠을 자는 동안 그의 몸이 거미들의 놀이터가 되고 쥐들의 먹이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p. 262)

현실과 꿈이 구분이 안 되는 세계, 즉 999의 사다리 계단을 오르기 전에 M은 거미와 쥐로 상징되는 세속적인 욕망들로부터 육체의 괴롭힘을 당한다. 어떠한 고통과 위험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추구하였던 갈망을 맛보기 위해 M은 육체적인 위기와 정신적인 위기감을 넘어서야 한다. 사력을 다해 999계단을 넘어야 한다. 그래야 천국의 본질을 알 수 있고 기쁨에 도달할 수 있다. 이처럼 천국에 도달하는 길이란 쉽지 않다. 천국은 루이스의 「새벽출정호의 항해」14장에서 생쥐 리피치프가 마음 속으로 갈망했던 그곳 아슬란의 나라에 도착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저는 모든 힘을 다해 새벽출정호를 타고 동쪽을 향해 항해하겠어요. 만약 어려움이 닥치면 이 작은 배의 페달을 동쪽을 향해 더 세게 밟겠어요. 만약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면 저는 저의 이 네 발을 흔들어 동쪽을 행햐 사력을 다해 헤엄쳐 가겠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더 이상 헤엄칠 수 없게 되거나 엄청난 파도에 덮여 아슬란의 나라에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면 저는 코를 막고 물 속으로 들어가서라도 태양이 뜨는 그곳에 도착하겠어요.

리피치프와 같은 열망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승우는 혼돈의 꿈을 극복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4. 공간의 상징성

훼손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겠다는 갈망, 떠돌이 악사는 현실태가 아닌 정신태를 추구한다. 그는 존재론적으로 자유와 이상을 지향한다. 그 지향의 궁극적인 지점, 그 지점은 어디인가? 이승우가 설정한 공간의 상징성을 살펴보자. 그 지점은 떠돌이 악사와 M이 가고 싶어 했던 알렙 신전이다. 그런 의미에서 알렙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정신태의 근원에 이르는 것이며, 곧 신과의 소통을 이르는 길에 근접하는 것이다. 알렙은 원시나이어(語) 알파벳의 첫 철자 알파벳이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알파벳의 'A'가 바로 이 알렙(aleph)에서 파생한 것이다. 알렙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A는 시작의 기호이다.[2] 그렇다면 알렙은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근원이 되거나 우주의 기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 이들이 갈망하는 궁극적인 지점이 분명해 진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전은 그 의미면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 관광객들은 한때 번성했지만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고도의 유적들을 건성으로 훑어보고 얼굴에 달라붙는 모래먼지들을 피해 서둘러 버스에 올랐다. 가이드는 인류에게 최초로 허락된 완전한 정원이었으며 몇 세기 전까지도 여러 도시문명이 교대로 일어나고 주저앉기를 반복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격히 진행된 사막화에 의해 오늘날과 같이 황폐해진 짐멜에 대해 주로 버스 안이나 유적지 입구에서 간단히 설명했다. (p. 252)

지금의 신전은 신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 아닌 관광명소일 뿐이다.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신이나 우주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오늘

2) 마르크 알랭 우아크냉, 변광배 김용석 옮김, 『알파벳의 신비』, 살림, 2008.

의 삶을 구원해 줄 무언가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점을 의미하는 동시에 유적지에 대한 신화 그 자체를 알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M은 이러한 시대에 환경에 의해 파괴되고 폐허가 된 신전을 찾아간다. 그는 폐허가 되어버린 유적지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세속인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신과의 소통이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열쇠가 그곳에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 M은 신이 존재하거나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장소에 온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알렙은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시작점이라는 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떠돌이 악사나 M, 노인 모두 알렙 신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곳에 도착하거나 그곳에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알렙은 우주의 기원을 푸는 출발점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M이 '향연'에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통해 알렙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노인은 오래전에 악사가 '향연'의 대화에 참여했었다고 기억해냈다. 그 악사가 무슨 신전 이야기를 했지. 아마 신전의 천장이 까마득하게 높은데, 천장에 둥근 창문이 있다던데. 해가 하늘 한가운데 멈춰 있을 때 그 창문 아래로 똑바로 서서 위를 바라보면 우주의 기원을 볼 수 있다고 하던가. 우주의 본질을 사유할 수 있는 이미지를 얻게 된다고 하던가. (p. 251)

> M은 위를 올려다 보았다. 해가 하늘 한복판에 있을 때 천장에 만들어진 둥근 유리창을 바라보면 우주의 본질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우주의 이미지를 사유하게 하는 이미지, (…) 그러나 둥근 유리창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p. 256)

위에서 제시된 악사의 말을 회고해 보면, 알렙 신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이 부분은 알렙 신전이 단순히 신전이라는 이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 우주의 본질을 사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나게 하는 장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전은 대지의 깊은 곳에 있는 어디인지 확인할 수 없는 은밀한 장소인 까닭에 인간의 영혼의 구조를 형성하는 심부(深部)로 인식된다.[3] 그런 면에서 알렙 신전은 신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따라서 M은 지금까지 갈망해 왔던 우주의 기원을 찾기 위해 어둠의 공간에서 빛의 공간을 찾아 나선다.

> 해가 하늘의 한복판에 이르렀을 거라고 추측되는 시간부터 줄곧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우주의 기원과 본질을 사유할 어떤 이미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중략) 사막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동안 모래는 신전의 지붕에 켜켜이 쌓여왔을 것이다. 모래가 원형의 유리창만을 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략) 그리하여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전에서 우주의 본질은커녕 하늘을 보는 일조차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만다라는 모래 속에 매장되어버렸을 것이다. (pp. 262-263)

강렬한 태양에 대한 응시, 이것은 삶에 대한 하나의 태도, 구원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몸짓이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응시한다. 그러나 신전에는 빛이 들지 않는다. 신전의 지붕이 오랜 세월 모래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우주의 본질을 위한 어떠한 이미지도 그려낼 수 없다. 신전은 이미 빛의 세계가 아닌 어둠의 세계가 존재하는

---

3) G. Bachelard, La Terre et les Reveries du Repos(Librairie Jose Corti, 1948), p.121. 김은자, 『현대시의 공간과 구조』, 문학과 비평사, 1998, p.193에서 재인용.

공간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즉 동굴과도 같은 공간이 된 것이다. 빛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그곳에 들어가 이미 존재해 있던 이미지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빛의 세계를 탐구하지 않는 것은 곧 관광객과 같이 우주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주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 모험이 뒤따른다. 깜깜한 신전 속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생명 생성 이전의 상태, 즉 태초의 카오스의 재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본질을 확인하고 싶은 갈망이 열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망설일 수 없다. 여기서 멈춘다면 관광객들처럼 현실태에 머무르는 삶을 살뿐이다. M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갈망을 위해 입굴(入窟),[4] 즉 신전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한다. 그 행위는 고통과 아픔을 동반함과 동시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담보해야 하는 힘든 작업이다. 따라서 입굴 행위는 신전이 세속과 구별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제공됨과 동시에 통과제의에 수반되는 고난과 시련을 집약적으로 상징하는 공간임[5]을 믿는 믿음의 행위이다.

> 글자 옆에 관 모양의 도형이 새겨진 것으로 보아 그곳이 무덤이라는 짐작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p. 258)

> 그러니까 그곳은 죽은 사람들의 집이었다.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이 미리 차지한 자리를 피해 조심스럽게 걸어 다녀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징벌의 매가 목덜미에, 등허리에 떨어졌다. (p. 259)

신전은 무덤이라는 죽음과 연결된 통로로 볼 수 있다. 신전은 산 자가 찾아가는 곳이며 죽은 자가 묻혀 있는 곳이었다. 즉 신전은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며, 인간과 신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신전은 어둠 속에 잠겨 있다. 신전은 “임의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신이 존재하거나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신의 현현은 이스라엘 가운데 자주 증거되었다."[6] 그러므로 순례자는 천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빛을 찾아가야 한다. 그곳에 신이 임재하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무덤의 공간이자 어둠의 공간에서 빛을 찾아 나선다. 이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 더 나아가 우주에 대한 기원을 신에게 구하고자 하는 행위가 된다.

또 신전은 인간의 자궁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동굴에 들어가는 것은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 그곳에서 영원히 잠들고 싶어하는 마음의 발로이다.[7] M은 신전에서 고고학적 탐구를 한다. 그것은 꿈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구원을 얻기 전에 인간에 내재된 아픔의 순간을 보듬고 안아주어 혼돈된 상황을 압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떠돌이 악사가 신전에서 꿈을 꾸며 고고학적 탐구를 하는 행위는 그곳이 이미 그에게 각인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떠돌이 악사는 오래 전부터 기억되어 있는 공간, 그의 기억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기억 속에 내재되어 있던 공간을 찾아 나서서, 이곳에서 고고학적 꿈을 꾸고 있다. 따라서 떠돌이 악사가 꾸는 꿈은 그의 순례가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공동체적 차원의 보편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신전

---

4) 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76, p.58.
5) 조선경, 「고소설에 나타난 변신의 양상과 의미-원형의 상징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강남대 석사, 1998, p.12.
6) 앨런 로스, 김창동 역,『거룩과 동행』, 디모데, 2009, p. 30. 창 38:10-17, 출 20:24, 삿 6:24-26, 삼하 24:16-25.
7) 진선경, 「장용학 소설의 동굴 모티프 연구」, 경희대 석사, 2001, p.17.

은 우리의 잃어버린 낙원이고 기원의 세계인 것이다.[8] 따라서 신전은 갈망의 궁극적인 지점임과 이곳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부활이 가능한 수직적 공간[9]으로 작용하고 있다.

5. 신과의 소통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순례는 고난과 시련의 길이지만 우리를 창조한 존재자를 찾아가는 실재에 이르고자 하는 갈망의 여정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인간에게 우주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관계가 정립되기 전에는 어떠한 성취와 부와 명예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때문에 영적인 탄생을 위해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은 괴로운 즐거움이다. 그런 점에서 순례는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관심에서 비롯된 갈망의 주요 수단이며 실존적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장소에 대한 강렬한 동경과 관련된다. 충족되지 않는 갈망, 갈망을 갈망하게 만드는 그 무엇을 이승우는 작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제 주인공 M이 순례의 길에 접어든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더듬어 보는 가운데 갈망을 갈망하게 만드는 그 무엇을 살펴보자.[10]

알렙 신전에 도달했을 때 자신이 왜 이곳까지 왔으며, 떠돌이 악사의 영적 세계관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M은 의식한다. 영적 세계관을 의식하기 시작한 M은 자신의 갈망이 신과의 소통 가능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갈망이 발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신의 섭리가 작용해서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기 전에, 작가는 먼저 독자에게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것의 첫 번째 사건은 M이 떠돌이 악사를 만나면서 부터이다.

> 악사의 메마른 입술이 그의 귓불에 닿을 때 그는 자기가 그 사람의 악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알렙, 신전, 우주의 기원과 본질을 사유할 수 있는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하지. (p. 247)

> 숨을 거두기 전에 악사가 그의 몸속으로 있는 힘을 다해 숨을 불어넣었고, 그것이 말하자면 그 떠돌이 악사의 마지막 연주였다는 걸 M은 나중에 알았다. (p. 247)

M의 인생에서 일어난 변화는 단순하지 않다. M이 떠돌이 악사로부터 우주의 본질과 기원을 사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M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인용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M이 영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된 동기라고 밝히고 있다. 떠돌이 악사는 영적 세계관을 M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숨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떠돌이 악사는 M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한다. 따라서 떠돌이 악사가 M에게 소리로써 우주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이미지를 전파하는 것은 일종의 태신자를 탄생시키는 출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의『향연』에서는 출산의 의미에 대해서 "낡고 늙은 것 대신에 새롭고 젊은 것을 남겨두는 것"[11]이라고 한다. 출산에 의해 새로운 자손을 본다는 것은 구원의 수수께끼에

---

8) 진선경, 앞의 논문, p.103.
9) 진선경, 앞의 논문, p.94.
10) 여기에서는 플라톤의 『향연』(M이 순례의 길에서 들렀던 '향연'의 공간과 일치하는 것은 아마도 작가의 의도로 보인다.)과 더불어 플라톤의 사상과 연관하여 순례의 길을 살펴볼 것이다.
11) Platon,『Symposium』, 207d.

동참하게끔 유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12] 따라서 떠돌이 악사의 마지막 연주가 M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자가 있어야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성한 빛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인간과 인간 간의 영혼의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그리고 스무살이 되었을 때 M은 떠돌이가 되었다. (중략) 떠돌며 만난 세상은, 그의 피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소리로 바꿔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하여 무엇을 나타내는지 상상할 수 없는 소리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pp. 248-249)

피리 소리는 M에게 기쁨을 맛보게 하는 표지판이다. 그 기쁨을 맛보게 된 M은 세상의 쾌락을 다 준다고 해도 그것과 바꿀 수 없기에 피리 소리에 이끌려 순례의 길을 시작한다. 인생살이에서 향기롭고 감미로운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여기저기를 기웃거리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기에 상상할 수 없는 소리들이 점점 줄어든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깥에 있는 무언가 특별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뒤, M의 순례의 길은 점점 깊어진다는 것이다. M은 영적인 세계관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 가치가 없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전방향이 창조주가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승우는 우리로 하여금 M을 통해 순례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 그들은 꽤 진지하게 나름의 논리를 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려오지 않았다. 그 대신 어린 시절 떠돌이 악사가 지상에서 한 마지막 구절이 문득 떠올라 귓가에서 수런거렸다. 알렙, 신전, 우주의 기원과 본질을 사유할 수 있는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하지. (p. 249)

> 그 사람의 말은 그 자리의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유희에 다름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됐는데, 그 판단과는 무관하게, 어떤 의식이 작용한 것인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순간 M은, 자기가 집과 혈육을 떠나 세상을 떠돌아다닌 것이 오로지 알렙에 이르기 위해서였다는 깨달음과 만났다. 막연하지만 피리—피리의 기억이 그를 그곳으로 인도해갈 거라는 믿음을 무의식 속에 있었던 거라고, 피리를 불며 떠돈 것은 그 믿음 때문이었다고 그 깨달음은 알려주었다. (p. 250)

M은 순례의 길에서 '향연'이라는 술집에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 고대의 소피스트 철학자를 연상시키는 그들은 우주의 기원과 본질이 꽃이거나 불이거나 원이거나 숫자 7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념적 이미지들 속에서 M은 떠돌이 악사가 남긴 말을 다시 떠올린다. 그것은 향연에 모인 사람들의 토론에 현혹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M이 우주의 창조자와 우주의 본질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받아들이는 데는 떠돌이 악사의 피리 소리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순례의 과정에서 M이 거짓된 세계관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갈망을 향한 표지판을 보고 깨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이며, 갈망의 종착점에서 표지판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를 기억한 것과 똑같이 M도 자신이 언제 실재 세상을 갈망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 M은 어렵고 힘든 순례의 길을 가면서 불신의 암흑에서

12) 박민규, 「플라톤적 에로스론의 철학교육적 의미-'향연'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 1995, P.33.

벗어나 실제의 빛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는 무덤에서 깨어난 것이다.

> 그는 여러 명의 성자들이 누워있는 무덤들 사이에 그 사람들 가운데 한사람처럼 누웠다. 그는 빨리 해가 떴으면 하고 바라다가 얼른 잠이 들게 해달라고 성자들에게 빌었다. 마음 한 쪽에는 잠에서 깨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어디선가 아련하게 피리소리가 들렸다. (p. 261)

> 눈을 떴을 때 벽면의 길쭉한 유리창에 장식된 꽃무늬 사이로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M은 눈을 비비고 일어나며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준 신전 안의 성자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했다. (p. 262)

M은 자신이 찬미하였던 고대와 중세, 현대의 모든 영적 세계관을 받아들였던 성자들이 누워있는 무덤들 사이에서 잠을 청하면서 또 다시 피리 소리를 듣는다. 이것을 변화의 두 번째 단계라고 말하고 싶다. 처음 단계가 막연한 유심론을 향한 갈망이었다면, 이번 단계는 우주 너머에 존재하는 지성적 존재를 받아들인 그 존재에 대한 완전한 항복과 복종이다. 세속적인 자신의 육체를 버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꿈을 통한 시련과 아픔이 동반 되었지만, 영혼의 순수성만을 추구한 잠을 자는 죽음의식은 우주의 기원과 본질을 발견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M은 성자와 동일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서 피리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잔 후에 신전에서 찾을 수 없었던 빛의 세계를 느끼게 된다. M은 순례의 여정을 마무리 짓는다. 그는 피리 소리로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면서 영광의 세계, 신의 질서에 들어선 것이다. 신들은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세상 만물에 대한 질서를 세우셨다.[13] 따라서 M은 기꺼이 모든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자기가 마음속으로 깊이 열망했던 그곳에 도착해서 영광을 세계를 바라본 것이다. M에게 열망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우주에 대한 본질과 천국이라는 왕국을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14]

> 무엇 때문인지 더 이상 노인이 그를 방해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는데, 그것은 자기를 죽은 자로 인식하는 심리상태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다. 죽은 자는 단속할 수 없으니까, 하고 중얼거리고는 누가 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멋쩍게 웃었다. (p. 262)

> 천장에 발을 딛자 머리 위에 굵은 글씨로 씌어진 한 문장이 나타났다. '땅에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는데 (…)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중략) 문장의 흐름으로 보면 주어가 들어갈 자리였다. (중략) 소리와 사람과 7과 별과 원과 성자와 바람과 모래와 신과 천사와 쥐와 피리소리와 악사를 넣어서 발음해 보다가 그만두었다. 무엇이나 하늘과 땅을 오르내릴 수 있지만, 동시에 어느 것도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기에 마땅한 것 같지 않았다. (pp. 264-265)

영광의 세계를 맛본 M은 자신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노인에 대한 생각마저도 바꾼다. 이 경험은 M을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동시에 초월세계를 향하게 하였다. 즉 M은 신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웃는다. 그리고 신에게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긴다. 바로 신과 가장 가까이에 갈 수 있는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 꼭대

13) Platon, 같은 책, 202e.
14) 박민규, 앞의 논문, p.32.

기는 하늘에 닿아있다. M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통로에 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28장 12절의 야곱의 사닥다리를 연상시킨다.[15] 그런데 이승우의 작가적 능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곳은 사다리를 오르기 전에 본 문장 안에 주어를 빠지게 장치한 점이다. 왜 생략되어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 주어 자리에는 자기 인생을 바꾸어 놓은 영적인 체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생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통계에 의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 그 절반 정도가 회심 체험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16] 신의 영광을 맛본다는 것은 열망이 부재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강렬하게 열망할 때 가능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생략되어 있는 주어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의 자세이다. 갈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열망과 위험을 극복하고자 하는 영적인 순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순례자의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모래를 퍼내면서 M은 신전의 일부를 헐어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쌓인 지 오래된 모래일수록 집착하는 힘이 강해서 작업은 순조롭지 않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물론 각오한 바였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일을 위해 나는 이 사막에 왔다, 라는 의식이 이미 M의 내부에 튼튼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pp. 265-266)

> 모래를 뒤집어쓴 그의 몸은 모래로 만들어진 조각품 같아졌다. 새로운 해가 떠오르기 직전, 그 희미한 박명의 시간에 신전 지붕 위의 모래가 완전히 치워지고 원형의 유리창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고열과 두통을 참으며 밤새 신전의 일부를 헐어낸 M은 그 유리창 위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다. 바짝 마른 사막의 햇빛은 M의 몸속 깊은 곳으로 스몄다. 그러자 음악 소리가 우주에 울려 퍼졌다. (p. 266)

M은 이제 순례의 마지막 길인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의 마지막 작업은 신전에 있는 모래를 걷어내는 것이다. 사막의 모래 바람에 덮여 있던 신전은 이제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M은 고열과 두통에 시달린다. 그 만큼 순례의 마지막 길이 쉽지 않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순례란 관념적인 생각만 갖고서 순수한 사랑과 기쁨, 그리고 환희가 넘치는 영역에 도달할 수 없고, 오히려 영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 용기를 갖고 싸워야 하는 전투의 길이다. 순례의 길은 자신의 죽음도 무릅쓰면서까지 자신과 같은 길에 들어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우주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이미지를 더 잘 발견하고 한 발짝 나아가게 해 주는 전도의 여정인 것이다. 그 힘든 여정을 극복하고 터진 광명,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신은 M에게 천상의 소리를 들려준다. 갈망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다가 결국 만나게 된 것은 신의 영광의 광휘와 '아름다움 자체'였다.[17]

작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인간의 존재와 운명, 우주의 본질, 창조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한 M은 그 진정한 의미를 노인에게 들려준다.

> 며칠 후 수도사 복장의, 수도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러나 수도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전의 유물임에는 틀림없어 보이는 노인이 신전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서 하늘을 올려다

15)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창 28:12)
16) Gallup et. al., Surveying the Religious Landscape, p. 67.
17) 박민규, 앞의 논문, p.40.

보았다. 마침 해가 하늘 한 복판에 떠올라 있었다. 노인은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아니면 못했다고 해야 맞을까. 그 대신 그는 세상을 떠돌며 피리를 불었다. 그가 입을 대면 피리가 저절로 소리를 냈다. (p. 266)

떠돌이 악사가 M에게 소리를 통해 순례자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것처럼, M도 노인에게 빛과 소리를 통해 순례자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 M은 영적 순례의 과정을 통해 우주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것을 노인에게 하나 더 보여준다. 이렇게 궁극적 실재를 갈망하는 것에 대해 점진적으로 장치한 것은 작가가 전도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한 것으로 보이며, 갈망에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임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이 본 것은 신과의 소통을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M의 열망존을 통해 제 노인도 우주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 사유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의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M의 죽음, 즉 순례자의 죽음은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6. 맺음말

이승우의 단편「999」는 유물론자와 유심론자로 나누어진 세계에서 유심론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기독교 작가의 유심론과는 다른 넓은 의미의 플라톤적 유심론에 가깝다. 이승우는 플라톤의 설명 방법을 도입하여 독자들에게 갈망의 과정과 본질을 이해시킨다. 즉 플라톤의「향연」을 작품에 끌어오기도 하고 동굴의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영적인 세계관을 부각시킨다. 이승우는 작품 세계에 나타난 갈망이라는 영적 주제들을 통해 우주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곤 사물 그 자체와 자연적 요소밖에 없다는 것을 신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본 작품은 신을 찾아가는 구도의 과정과 그것을 찾기 위한 인간 본연의 심적 구도를 그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두 가지 세계관을 갖고 있다. 하나는 “근대의 과학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얼굴에 신비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18]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뉴에이지(the New Age)를 신봉하는 세계관으로 “이 세상은 모두 영적인 요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모든 것이 신”이라고 믿는 범신론을 주장하는 부류이다.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할 때 그 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는 파괴된 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거대한 존재의 파편으로 존재”[19]할 뿐이다. 이러한 두 세계관은 인간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근대주의자들이 “인간을 단지 육체적, 물질적 조건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해석하면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수준을 동물의 수준 정도로 깎아 내렸다.” 한편 뉴에이지는 “육체는 환상에 불과하며 영혼만이 진정한 실체”[20]라고 주장한다. 뉴에이지 세계관은 “기쁨과 고통 모두를 초월한 열반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며, … 열반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의 긴 여정의 최종 종착점에서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영혼과 재결합”하는 것이다.[21] 이러한 이들의 인간관은 기독교의 인간관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우주 속에서 독특한 존재로 구별된다.”[22] 인간

18) 루이스 마르코스, 앞의 책, p. 149.
19) 루이스 마르코스, 위의 책, p. 151.
20) 루이스 마르코스, 위의 책, p. 152.
21) 루이스 마르코스, 위의 책, p. 154.
22) 루이스 마르코스, 위의 책, p. 151.

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피조물로 보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갈망을 갖고 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은 순례의 길을 가게 하며, 그 길에서 거룩한 경외감 같은 감동을 전해주는 전도자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전도자가 만났던 영적 세계관이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어 그것이 삶의 목적이며 지향점이 되어 순례의 길을 떠나 거룩한 분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999개의 사닥다리의 단을 딛고 올라간다. 우리는「999」를 읽으면서 갈망이라는 기독교적 메시지의 경이로움을 미학적 감각으로 생생하게 맛보게 된다. 결국 우주의 본질과 기원을 열망했던 인물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의 실체로부터 들려오는 메아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참고 문헌>

Platon,『Symposium』.
G. Bachelard, La Terre et les Reveries du Repos, Librairie Jose Corti, 1948.
Hirschberger, J. Geschichte der Philosophie, Vol. 1, 강성위 역, 이문출판사, 1988.
놉, 프라이,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0.
마르크 알랭 우아크냉, 변광배 김용석 옮김, 『알파벳의 신비』, 살림, 2008.
마르코스 루이스,『루이스가 일생을 통해 씨름했던 것들』, 그루터기하우스, 2004.
킬비 슬라이드 S, 양혜원 역, 『C. S. 루이스의 작품 세계』,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76.
김은자, 『현대시의 공간과 구조』, 문학과 비평사, 1998.
마광수, 「미의식의 원천으로서의 <자궁회귀본능>에 대하여」,『심리주의 비평의 이해』, 청하, 1989.
박민규, 「플라톤적 에로스론의 철학교육적 의미-'향연'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 1995.
조선경, 「고소설에 나타난 변신의 양상과 의미-원형의 상징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강남대 석사, 1998.
진선경, 「장용학 소설의 동굴 모티프 연구」, 경희대 석사, 2001.